

편집 및 발행인 : 장영태 · 발행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총괄 : 최나영환 감수 : 길광수 전화번호 : 051-797-4770 · E-mail : chnayoung@kmi.re.kr / kdong@kmi.re.kr

Contents

● 국제물류 통계

- 말레이시아 항만물동량, '15년 이후 성장 정체 지속

● 국제물류 투자 동향

- Maersk, 세계 최대 태양광 모듈 제조사 JinkoSolar와 전략적 제휴

● 국제물류 주요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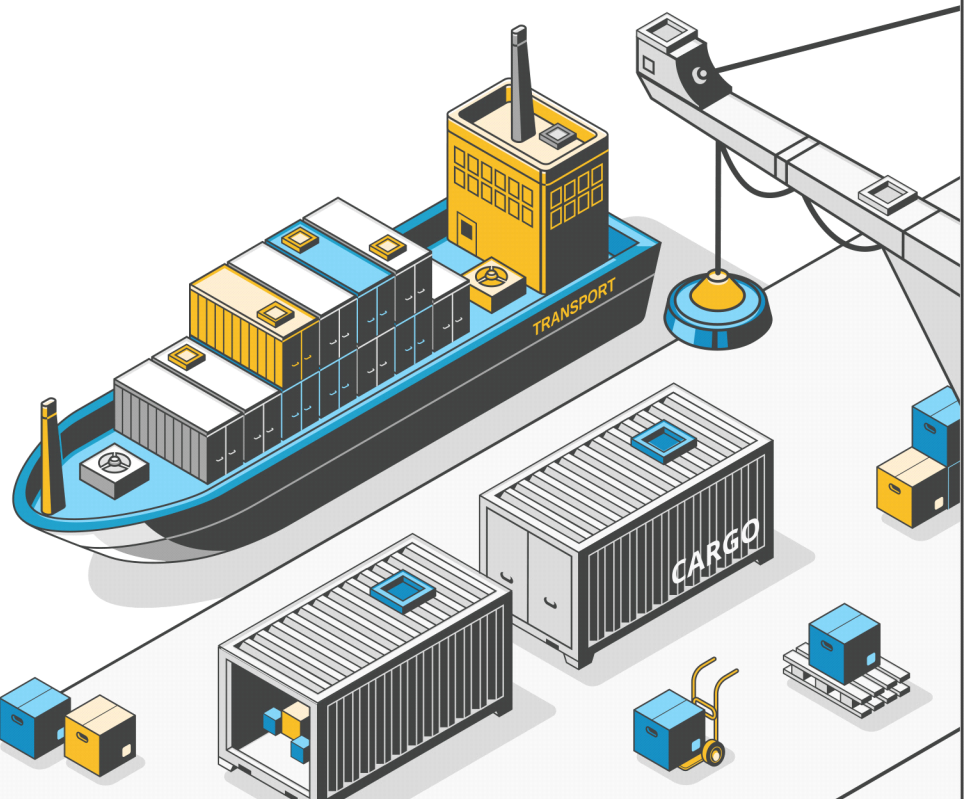
- DHL, '07년 대비 2025년 탄소 효율성 50% 향상 목표
- UPS, 전략적 우선순위와 새로운 ESG 목표 함께 발표

● 국제물류 연구동향

- 농산물 수출 경쟁력 제고 위한 해상물류의 중요성 연구

● 공지사항

- 2021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추가 모집 공고
- “국제물류 정보포털”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서비스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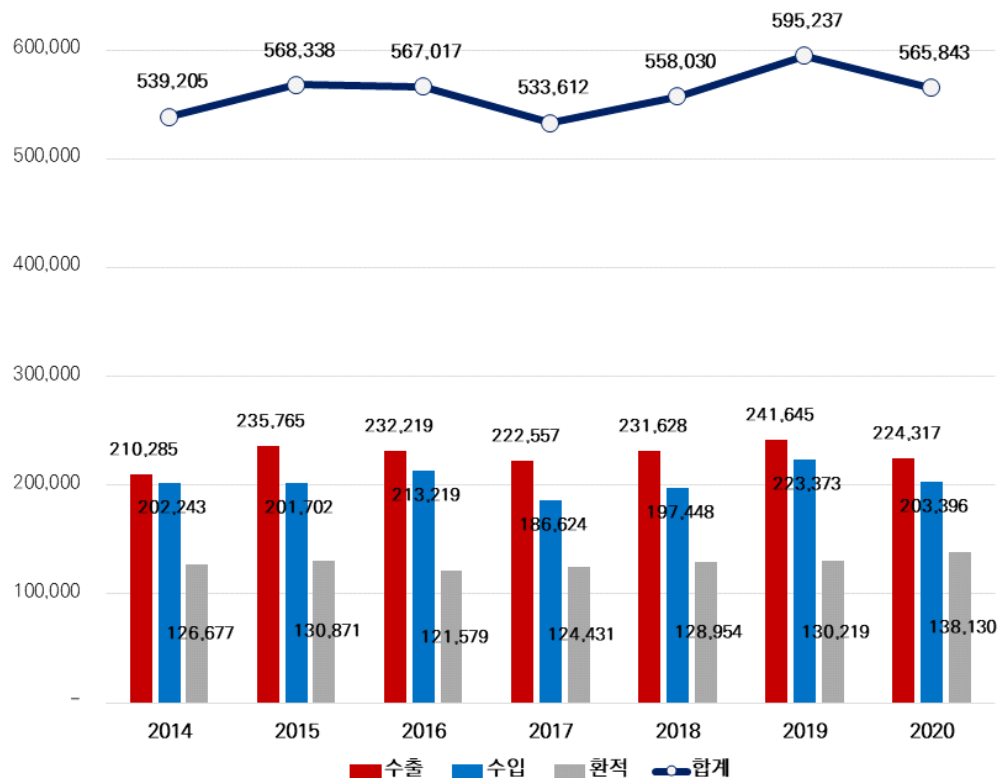
말레이시아 항만물동량, '15년 이후 성장 정체 지속

● 말레이시아 항만물동량이 '15년 이후 성장 정체가 지속되고 있으며, 환적물동량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전체 항만물동량은 2015년(약 56만 톤)부터 2017년까지 감소세가 이어졌으며, 이후 다시 회복하여 2019년 총 물동량은 약 59만 톤에 달했으나, 지난해 다시 하락하는 등 정체가 지속되고 있음
- 수출입 물동량 모두 전체 항만물동량의 증가 및 감소 추세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환적물동량은 2016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14만톤을 처리했음

말레이시아 항만물동량 변화(2014~2020년)

(단위 :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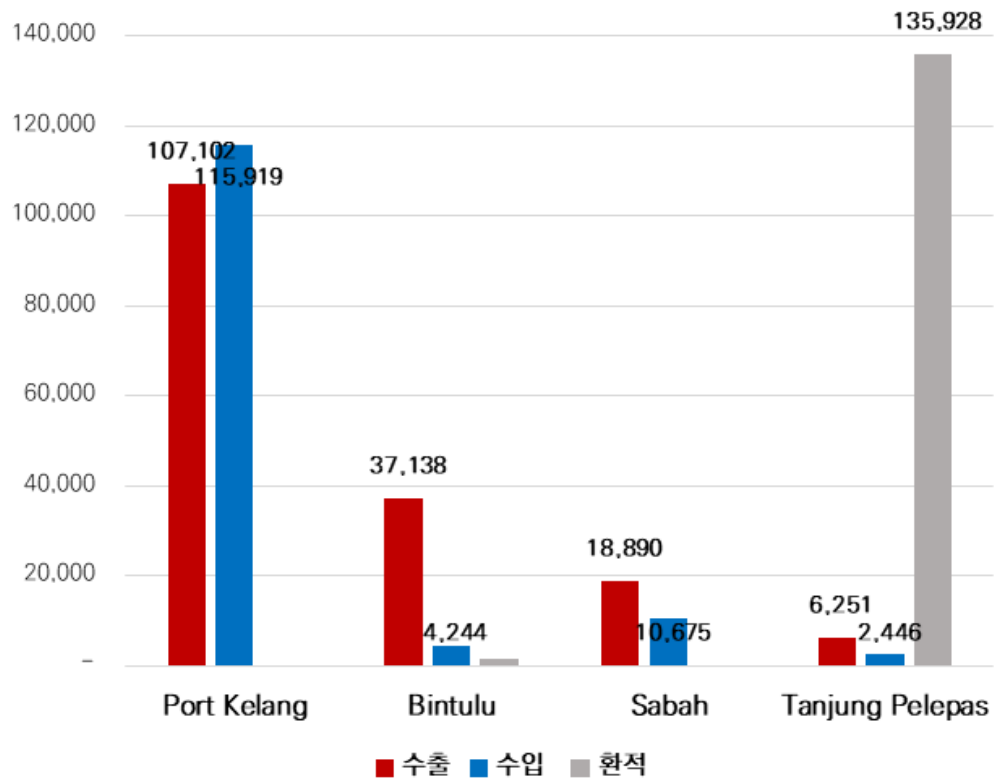
자료 : 말레이시아 교통부 통계자료 활용(www.mot.gov.my)

▶ 말레이시아 주요 항만별 수출입 및 환적물동량을 살펴보면 Port Kelang은 수출입, Tanjung Pelapas는 환적에 각각 특화된 항만으로서의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남

- Kelang항은 말레이시아 항만 가운데 가장 많은 수출입 화물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물동량 처리 비중은 지난해 기준 약 52%로 파악됨
- Tanjung Pelapas항은 말레이시아 환적물동량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등 항만별 특성이 상이하게 나타남

말레이시아 주요 항만별 수출입 및 환적물동량 비교(2020년 기준)

(단위 : 톤)



자료 : 말레이시아 교통부 통계자료 활용(www.mot.gov.my)

참고자료 : www.mot.gov.my, (검색일: 2021.07.26.)

Maersk, 세계 최대 태양광 모듈 제조사 JinkoSolar와 전략적 제휴

- 글로벌 물류전문 저널 Seatrade Maritime News를 비롯한 여러 매체에 따르면 세계 최대 해운기업인 Maersk가 태양광 모듈제조업체 JinkoSolar(이하 JKS)와 전략적 제휴를 맺었음

 - JKS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혁신적인 태양광 모듈 제조업체 중 하나이며 전 세계적으로 9개의 생산 시설과 22개의 해외지사를 운영하고 있음
 - 아울러 JKS는 수직으로 통합된 태양광 제품의 체계적인 공급사슬을 구축하고 있으며 연간 통합 용량은 모노 웨이퍼 22GW, 태양전지 11.5GW, 태양광 모듈 31GW에 이름
- 양사는 2017년부터 중요한 파트너로서 협업을 해왔으나 이번 전략적 제휴로 더욱 광범위한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이번 전략적 제휴를 통해 양사는 기존의 end-to-end 운송계약을 기반으로 다차원적인 협력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디지털화된 물류 서비스에서 심층적인 협력을 모색해 고객에게 다양한 종합 물류 솔루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녹색 물류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포부를 밝힘

 - JKS의 Kangping Chen CEO는 Maersk와의 확대된 전략적 협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컨테이너 부족을 관리하고 운송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유연하고 편리한 솔루션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계획을 제시함
 - 또한 JKS의 선진화된 글로벌 고객 마케팅 시스템과 Maersk의 포괄적인 통합 운송 및 물류 전문 기술 네트워크를 활용함으로써 프리미엄 물류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 ▶ 업계에서는 이번 전략적 제휴를 통해 Maersk가 종합물류회사로서 라스트 마일(last mile)에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역량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탈탄소화된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옵션을 획득했다고 보고 있음

세계 최대 해운사 Maersk와 전략적 제휴를 맺은 JinkoSol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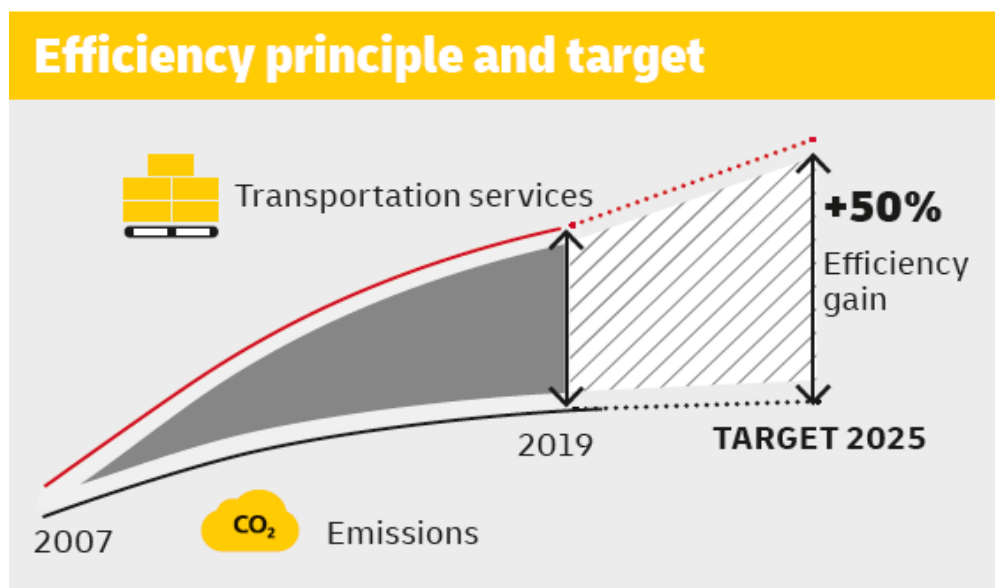


자료: <https://www.offshore-energy.biz/jinkosolar-inks-strategic-cooperation-deal-with-maersk-shipping/>

DHL, '07년 대비 2025년 탄소 효율성 50% 향상 목표

- DHL은 세계 최대 물류기업 중 하나로서 ESG 경영을 실천하는 대표적인 기업임
 - 지속가능성 및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은 물류기업 중 하나로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비전을 제시하며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음
- DHL은 2007년 대비 2025년 탄소 효율성 50% 향상 목표를 가지고 있음
 - 2025년 목표는 2007년 대비 50% 향상이며, 2050년에는 탄소 배출 제로를 목표로 함

2025년 이산화탄소 효율성 목표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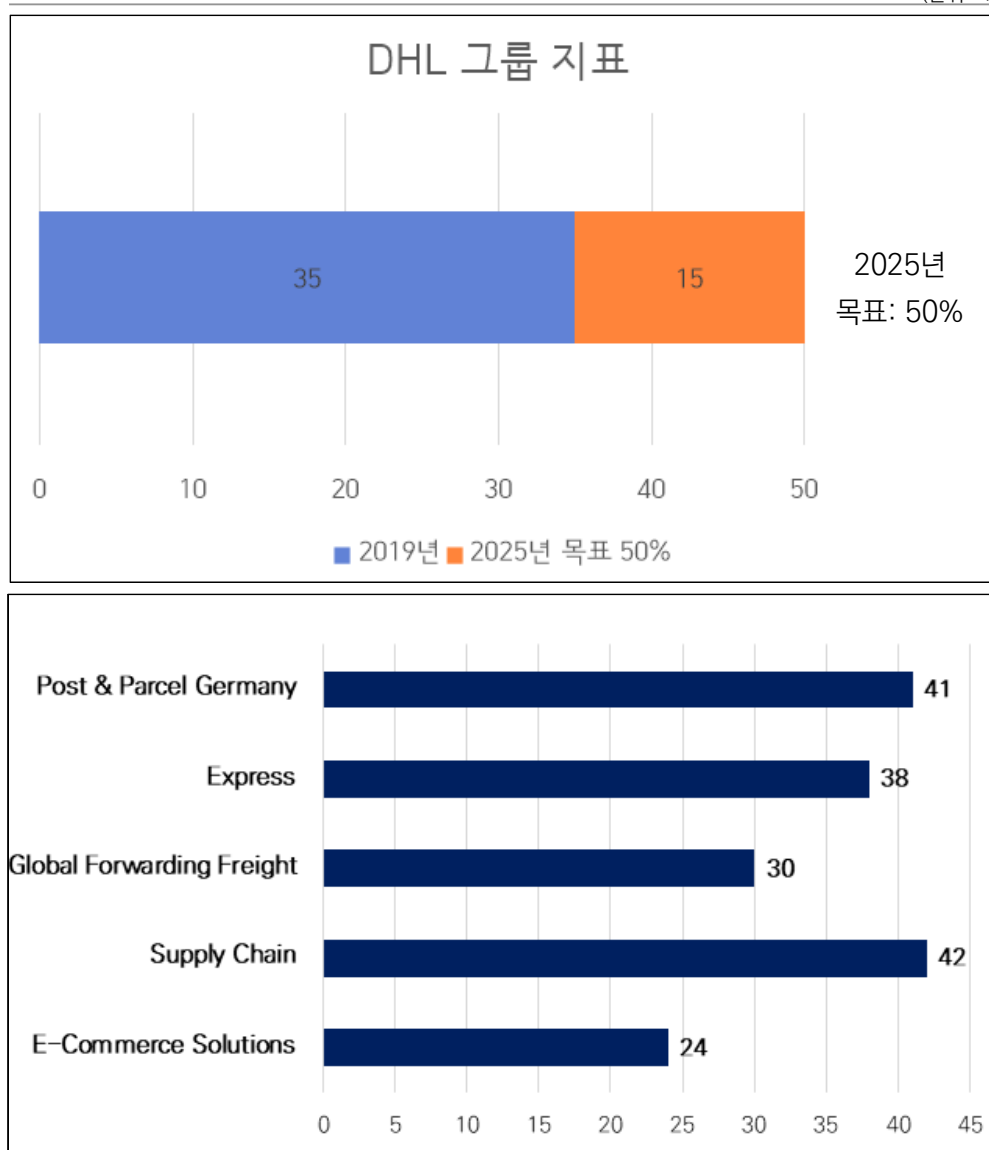


자료 : DHL, *POCKET GUIDE 2019*, p.97; Transport Intelligence, *LOGISTICS AND SUPPLY CHAIN SUSTAINABILITY REPORT 2021*, P. 64

- 세부 사업별 지표를 보면 공급사슬 부문에서 성과 지표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이산화탄소 효율성 성과지표 (Carbon Efficiency Index)를 살펴보면 공급사슬 부문에서 탄소 효율성 향상이 가장 높게 나타나며, 포워딩 부문에서 효율성이 가장 떨어짐

이산화탄소 효율성 성과지표(Carbon Efficiency Index·CEX, 2019년 기준)

(단위 : %)



자료 : DHL, POCKET GUIDE 2019, P. 98.

- DHL은 탄소 효율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시스템을 운영함
 - ISO14001(환경경영체제), ISO50001(에너지 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함
 - 'Burn Less and Burn Clean' 정책으로 항공 및 교통수단에 대체 연료 등을 활용함
 - 태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등을 활용해 창고를 운영 중에 있음
 - 새로운 항공기를 도입해 기존 항공기 대비 탄소 배출량을 줄임
 - 탄소 상쇄 정책의 일환으로 연간 100만 그루 나무를 심음
- DHL 이외에도 여러 물류기업들이 탄소 배출 규제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환경보호뿐만 아니라 기업의 이미지 제고에 적극 기여할 것으로 보임

UPS, 전략적 우선순위와 새로운 ESG 목표 함께 발표

- UPS는 ‘고객 우선(Customer First)’, ‘직원 중심(People Led)’, ‘혁신 주도(Innovation Driven)’의 전략적 우선 순위와 새로운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목표를 발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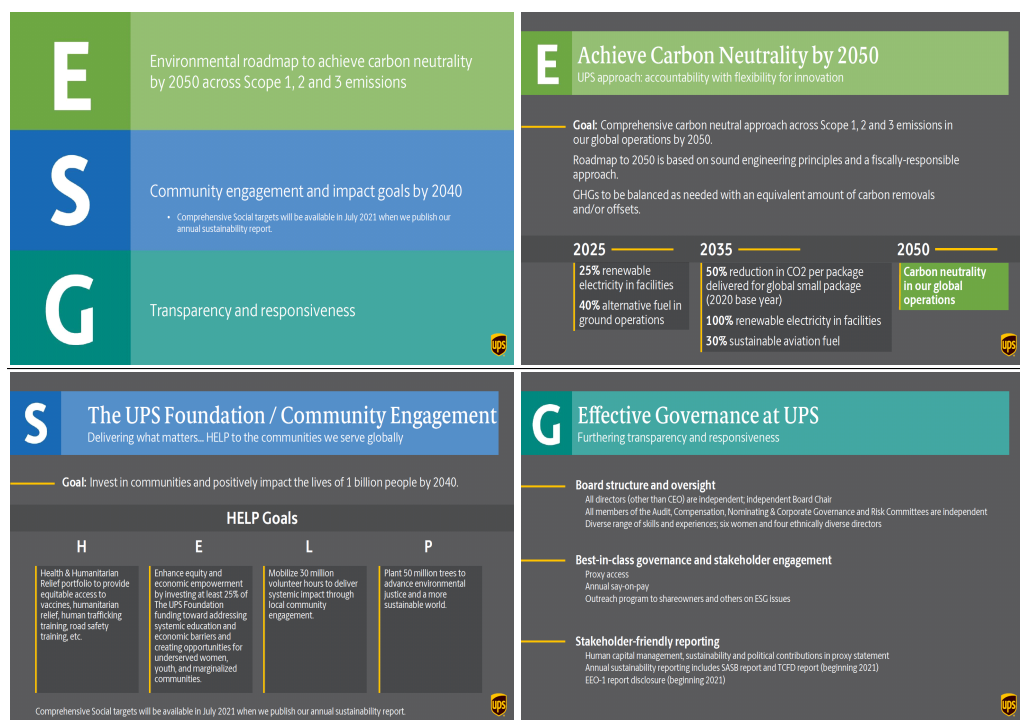
 -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함
- ‘고객 우선’ 전략은 글로벌 스마트물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최고의 디지털 경험을 고객에 제공하고 보다 더 고객을 위해 간편하고 유용한 결과를 지원하는 것임

 - ‘고객 우선’ 전략은 순수 고객추천 지수(Net Promoter Score, NPS)로 측정되며 UPS와 비즈니스 수행 시 마찰을 제거하는 데 중점을 두고 2023년 NPS 50점 이상을 목표로 함
- ‘직원 중심’ 전략은 회사의 중심인 직원의 경험을 개선하고 일하기 좋은 곳으로 2023년 추천가능성(likelihood to recommend) 80% 이상을 목표로 함
- ‘혁신 주도’ 전략은 기술 및 생산성 강화로 투자자본에 대해 지속적인 수익을 제공하고 배당 등을 통해 주주들의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함
- UPS의 캐롤 토메(Carol Tomé) 최고경영자(CEO)는 “UPS의 전략적 우선순위는 변화하는 고객의 니즈, 비즈니스의 요구와 주주들의 가치 창출을 반영하기 위해 진화하고 있다”고 전함
- 새로운 UPS의 ESG 목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의 범위를 Scope 1, 2단계를 넘어 3단계의 탄소배출량까지 전사적으로 탄소 중립을 유지하겠다는 것임

 - ‘Scope 1’은 직접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의미하고, ‘Scope 2’는 간접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포함하며 ‘Scope 3’은 협력사를 비롯한 물류 등 가치사슬 전반의 간접적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까지 포함됨
- 지속가능한 ESG 목표 달성을 위한 중간목표를 2025년으로 설정하고, ①소형화물 글로벌 운송 CO₂발생 50% 감축(20년도 대비), ②재생가능한 전기 100% 사용, ③전세계 항공기 30%의 지속가능한 항공 연료 사용을 목표로 함
- 글로벌 물류기업들은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ESG 전략 목표를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온실가스 배출량 Scope 3단계의 경우 협력사를 비롯한 물류 등 가치사슬 전반의 간접적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까지 포함하므로, 국내 대기업을 비롯한 중소 제조·물류기업들까지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책 마련이 시급함

UPS의 새로운 ESG 경영전략 목표



자료: <https://about.ups.com/>

참고자료: <https://about.ups.com/> (검색일 : 2021.7.26.)

농산물 수출 경쟁력 제고 위한 해상물류의 중요성 연구

무엇을 왜 연구했는가?

- 현재 조지아¹⁾의 농산물은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주변 국가들과 FTA를 체결해 가격 측면에서라도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 아울러 조지아에서 수출되는 농산물의 일부는 1차 생산품으로 제품 수명이 짧기 때문에 물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조지아의 농산물 수출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해상물류와 공급사슬 측면을 분석했음

무엇을 발견했는가?

- 조지아는 유라시아 대륙에서 코카서스 지역의 물류허브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지리적 위치에 있으며 중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대체 운송경로의 핵심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함
 - 따라서 조지아는 운송 및 물류 인프라의 체계적인 개발과 새로운 기술의 도입은 물론 국제물류의 효과적 관리가 필요함

조지아의 유라시아 물류 운송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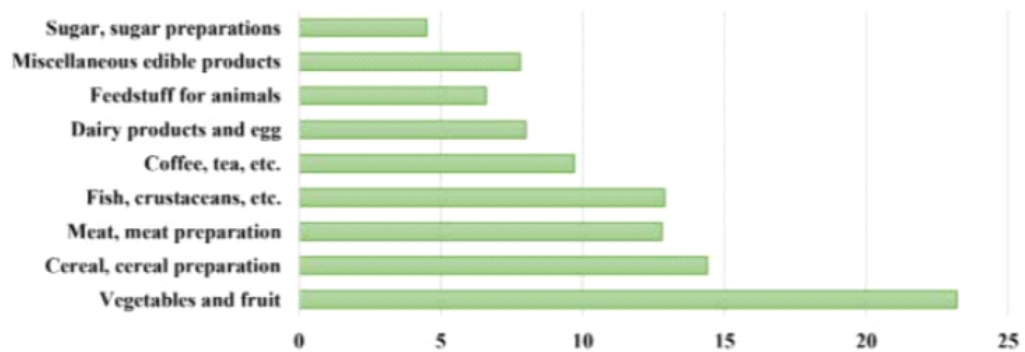
Types of transport		Time needed for transportation
Sea transport	→	36 Days
Air transport	↑	14 Days
Railway	→	2 Days
Sea-air transport	↕	25 Days

자료: 해당논문 p.4.

1) 조지아는 서아시아, 동유럽 남캅카스 지방에 위치한 흑해의 연안국가이며 수도는 트빌리시임. 대한민국 외교부에서는 조지아를 유럽으로 분류해 조지아와의 관계는 유럽 담당 부서가 맡고 있음. 이 나라의 국호는 러시아어 이름인 그루지야로 통용되었으나, 조지아 정부는 대한민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에 러시아어 그루지야 대신 영어 이름 조지아 (Georgia)로 자국 국명을 표기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으며, 대한민국 정부는 2010년 이 요청을 수용했음.

- 본 연구에서는 농산물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해상물류 및 공급사슬 관리의 역할을 평가하기 위해 설문조사 및 관련 자료를 활용해 정량적, 정성적 분석을 수행했음

조지아의 수출 농산품 구조



자료: 해당논문 p.6.

- 분석 결과, 조지아의 농산물 수출 경쟁력에 걸림돌이 되는 요소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수출품 선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열악한 인프라와 해상물류 시스템
 - 농산품과 관련된 효과적이고 현대적인 공급사슬 관리 프로세스의 부재 등
- 설문조사 및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조지아의 농산물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안했음
 - 조지아가 지역의 물류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해상물류 시스템 개선
 - 효과적인 농산물 수출증대를 위한 복합운송의 효율성 확보
 - 농산물 공급사슬의 효과적 관리 등

연구결과는 어떤 교훈을 주는가?

- 개발도상국에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해상물류의 중요성에 대해 실증적 분석을 수행했지만, 실효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지는 못함
- 중국과 EU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할 때, 해당 지역의 해상물류 또는 복합물류의 대안 경로로서 조지아를 고려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

자료: Sagareishvili, N. (2021). "The role of maritime logistics and supply chain in stimulating the export of agricultural products", In MATEC Web of Conferences (Vol. 339, p. 01008). *EDP Sciences*.

2021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추가 모집 공고(5차)

〈2021년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추가 모집 공고〉

해양수산부는 해외 유망사업 발굴을 지원하고 국내기업의 글로벌 물류 시장 진출 활성화와 국내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의 해외시장 동반진출을 장려함으로써 양 업계 간 상생협력 풍토를 조성하고자 “해외물류시장 개척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세부사업인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사업」과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7월 2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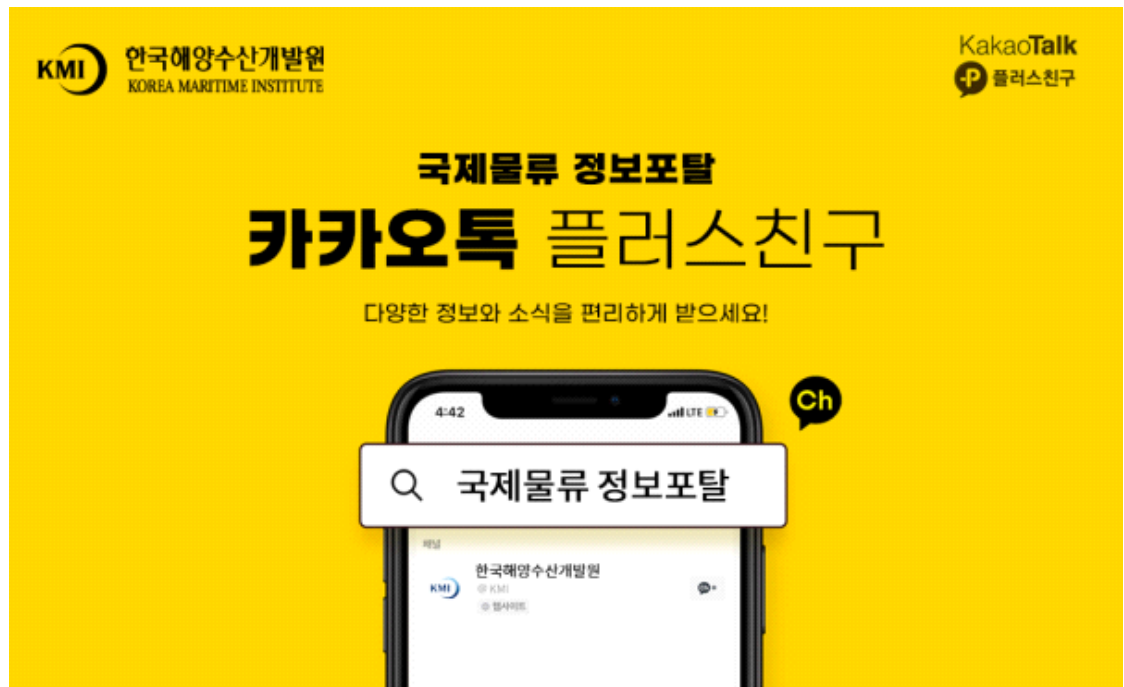
해양수산부장관

1. 모집기간 : 2021년 7월 21일(수) 09:00 ~ 8월 18일(수) 18:00 까지
2. 대상사업 :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사업」 및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 사업」
3. 제출방법 : 한국해양수산개발원(www.kmi.re.kr)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국제물류정보포털(withlogis.co.kr) 공고문 확인 및 양식을 다운받아 제출
4. 문의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 최나영환 센터장(051-797-4770, chnayoung@kmi.re.kr)
 - 김동환 연구원(051-797-4913, kdong@kmi.re.kr)

* 2021년도 1~4차 모집 선정기업 5차 모집 자원가능(당해 연도 단일 기업 최대 2건 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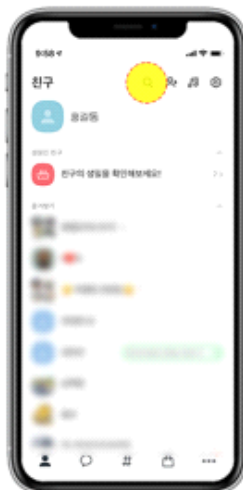
※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온라인 사업설명회(21.07.21~)

- 유튜브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채널(<https://www.youtube.com/channel/UCzU7uOfuXJVd9VeJPk0IAeg>)을 통해 실시



-P- 친구 추가 방법

1. 카카오톡 메인화면 상단 **친구 검색**



2. '**국제물류 정보포탈**' 검색



3. **친구추가** 버튼

